

교회와 경제사회정의 실현: 구속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 고찰

정세열 (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I. 서 론

1997년 말에 발발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물론 2008년에 돌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서민과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과연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며 무엇이 옳으며 특히 누구의 책임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 불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터널의 끝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득불균등은 이제 개별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적 사안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는 물론 그 맥락에서 발발한 금융위기와 소득불균등 심화의 문제의 이해와 처방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은 정의 혹은 공정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1)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정의에 관한 책들이 소개되면서 2) 정의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최근 상황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성경적 경제사회정의의 문제에 새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예를 들면, 과연 경제사회정의 실현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핵심 사명인지, 핵심 사명이라면 사회운동이 주목적이 아닌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은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된다.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기독교 철학자인 Wolterstorff(1982)는 특히 16세기와 17세기의 칼뱅주의자들의 신앙 및 세계관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

1) 2000년대 초중반에 탁월한 주류 경제학자인 Stiglitz(2003; 2006)는 당시까지 진전된 세계화는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이해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그의 대안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그의 비판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지 않다. 이어서 그는 2008년 9월에 발발한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금융위기의 원인과 미국의 정부의 사후 대처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이기심, 그리고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금융산업 구제를 통렬하게 비난하였으며(Stiglitz(2010)), 최근에는 점증하는 미국의 소득불균등 심화는 1% 상위 소득자들이 미국 민주주의와 법,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논지를 전개하여(Stiglitz(2012)) 논란을 야기하였다.

2) 대표적으로 Sandel(2010)을 꼽을 수 있다.

되도록 하는 소명 의식을 갖고 실제로 정치·경제·사회에 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에서 중세의 기독교와 카톨릭 교회를 구별하는 주요한 특징이었음을 주시시키면서, 이처럼 오늘날에도 개신교는 여전히 ‘세계 형성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이처럼 ‘세계 형성적’ 기독교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의 노력은 부수적인 사안이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소명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성경적인 정의와 평강(평화)의 공존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회적 역할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Wolterstorff의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세상 및 역사 섭리의 목적이신 바로 구속과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중심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Wolterstorff의 시각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구속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통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회적 역할 혹은 경제사회정의 실현과³⁾ 연계되는지를 논의하는 데에 주목적을 둔다.

본 논문에서는 구약의 시편과 선지서와 신약의 로마서에 초점을 맞추어 신·구약에서 정의와 평화의 공존은 구속의 은혜의 핵심이라는 논지와 이 구속의 은혜가 신·구약에서 어떻게 사회적 역할 및 경제사회정의 실현과 직결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6장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인 차원의 거룩 및 성화의 연습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세계의 모든 경제사회 문제에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인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 방향 및 방안도 간략히 언급한다.

II장에서는 Wolterstorff가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 혹은 경제사회정의 실현의 비전으로서의 정의와 평강의 공존의 개념과 그 의미를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해 정의와 평강의 공존이란 비전의 의미를 구속의 은혜의 개념에 비추어 검토하면서 구속의 은혜가 경제사회정의 실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논의한다. 역시 Wolterstorff가 언급한 경제사회정의의 동기를 역시 구속의 은혜의 맥락에서 검토하면서 실제적인 시사점을 언급한다. 이어서 결론을 맺는다.

II. Wolterstorff의 비전: ‘살림 안에서 정의의 실현’

Wolterstorff는 개신교의 사회적 역할, 혹은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열정과 노력과 관한 현실은 암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가 ‘세계 형성적(world formative)’-경제·사회 문제 및 구조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리고 칼뱅주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경제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는-‘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근본 동기는 바로 감사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감사가 순종으로, 순종이 소명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3)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역할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동의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칼뱅의 신관(神觀)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사상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감사다. 감사가 적절한 반응인 이유는, 무엇보다 그것이 명령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옳고 타당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행위도 감사를 드러내는 표시 중 하나다.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순종을 향한 헌신이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임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초기 칼뱅주의 경건의 독특한 특징도 후기 칼뱅주의 경건의 상당 부분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된다.”(Wolterstorff (1982), 40~41쪽)

그리고 그는 20세기 초중반의 세계형성적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해방신학과 화란의 이른 바 ‘신칼뱅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⁴⁾

해방신학은 구원에 강조점을 두면서 자결의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정복에 의한 자유는 그들의 관점과 충분히 융합될 수 없다. 암스테르담 학파는 창조에 강조성을 두면서 정복에 의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역시 그들의 관점에 자결의 자유는 충분히 융합되지 융합되지 못한다. 우리는 사상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더욱 포괄적인 비전이 필요하다.(Wolterstorff (1982), 143쪽)

이 같은 비전으로 Wolterstorff는 시편 85편에 표현된 ‘살롬 안에서의 정의의 실현’을 제시하는데, 이는 ‘구약 성경의 시가서와 예언 문학에서 처음 진술되었으며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비전’(월터스토프, 144쪽)이라고 언급한다. 살롬은 정의를 필수 전제로 하나, 살롬은 정의를 넘어서 기쁨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또한 지적한다.

그는 이사야 11장 6~8절 말씀에서 출발하여 살롬은 첫째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 분을 기쁘게 섬기는 상태를”(사 2:2~3), 둘째 “다른 인간들과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인간 공동체를 기뻐하는 상태를”(시 85:11~12), 셋째 자연과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물리적 환경을 기뻐하는 상태”(사 25:6)를 가리킨다고 한다.

신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불린다는 점을 Wolterstorff는 지적하면서 또한 이사야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음도 상기시킨다.⁵⁾

위에서 요약한 바에 따르면, 칼뱅주의 입장에서 사회적 역할의 근본 동인인 감사를 낳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칼뱅주의 신관의 핵심 요소는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서와 같이 구원의 은혜(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에 뿌리를 둔다. “한편 사회적 역할의 비전으로 제시한 평화와 공존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속의 은혜의 핵심이자 목적이다.

4) 월터스토프의 해방신학과 신칼뱅주의 평가 및 비판에 대한 검토는 본 논문의 주목적이 아니므로 하지 않기로 한다.

5) Wolterstorff (1982, 147~149쪽)

따라서 경제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바로 구원의 은혜와 직결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신·구약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와 정의와 평강의 공존이 어떻게 연계되며, 이로부터 어떻게 경제사회정의를 구원의 은혜의 맥락에서 정의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I. 구속의 은혜와 ‘정의와 평화’의 공존: 성경·신학적 일고

세상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고,⁶⁾ 따라서 역사는 구속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보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성경적 관점이다.

하나님은 구속 사역에 있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두신다. 따라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개인 생활은 물론 교회가 처한 세상과 역사의 이해와 직결되며 동시에 자신의 사명을 아는 데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구속의 은혜는 경제사회의 문제와 구조 개선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도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제 Wolterstorff가 제시한 비전에 비추어 구약과 신약을 통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경제사회정의와 연계되며 그 실현에 어떤 동기와 실천력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구약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와 ‘정의와 평화’

구약에서 정의와 평강은 구속(구원)의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Wolterstorff가 모두에 언급한 시편 85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게 된다고 선포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시편 85:9~13)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써 출발한다.⁷⁾ 구약 곳곳에서 이 같이 구속의 은혜는 공의의 실현 및 심판을 전제하며 동반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편 3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정의 및 공의와 인자하심이 공존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총만하도다.”(시편

6) Berkouwer (1952)

7) 이 말씀은 후에 다룰 로마서 3장의 구원의 은혜의 개념과 일치한다.

33:5)

이사야 61장 1~3절 말씀도 구원의 은혜는 심판과 함께 함을, 즉 정의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61:1~3)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시며”(사59:17)

구속의 은혜에 있어 공의가 차지하는 위치는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스가랴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기초이자 출발은 ‘진리와 공의’이며(스가랴 9:9; 8:7~8), 또한 공의로운 행위가 인자와 긍휼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스가랴 7:9-14; 8:16~17)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스가랴 8:19에서 하나님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구약은 구속의 은혜는 진리 속에서⁸⁾ 정의를 드러내며 정의의 실현 속에서 인애와 화평을 맛보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라기 4:1~2)”는 말씀도 역시 구속의 은혜는 공의로부터 출발함을 말하고 있다. 구원의 은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름으로 비쳐진다.

2. 이스라엘 민족공동체에서의 공의와 평화의 실현: 율법

정의와 평화의 공존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속 사역이 완성된 상태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에만 머물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자 비전이다. 그리고 구약은 정의와 평강의 공존은 신정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이스라엘 민족(형제)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공의 및 정의와 인애하심의 성품을 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개인 차원의 거룩함을 유지함은 물론 민족(형제)공동체인 이스라엘 국가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국가 구성원이 평강과 기쁨을

8)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구성원 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골육 및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다.⁹⁾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끊기면, 예외 없이 지도자의 압제와 힘없는 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사회로 나타남을 구약은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¹⁰⁾

따라서 힘을 가진 지배자에 의한 경제사회적인 압제 및 경제사회 구조의 왜곡, 그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 구성원 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서로 골육 및 형제가 되었다는 관계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심각한 죄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경제사회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죄의 결과이다.

경제사회 내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은 구약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 경제사회에서 정의와 실현을 통한 평화의 공존 여부는 개인, 교회와 사회 및 국가를 심판하는 잣대임이 특히 선지서에서 드러난다.¹¹⁾ 이러한 심판의 잣대가 이방 세계에까지 적용된다는 메시지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신약에서 구속의 은혜와 정의 및 평화는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구약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원의 교리를 함축시켜 놓아 신약의 꽃이라고까지 불리는 로마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신약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화

가. 로마서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와 정의와 평화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한 의(정의)가 나타나는 것이라 묘사하고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언급한 구약의 구속의 은혜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로마서 3:21~22; 25)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죄로부터의 돌아섬을 포함한다.

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송인규(1996, 21-32쪽)를 참조.

10)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만한 의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로마서 3장이 말하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 공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11)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아모스서, 미가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하여 죄의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 된다. 따라서 구속의 은혜는 정의를 이룸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감을 뜻한다.”¹²⁾ 로마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친구가 되었기에 평화를 맛보게 되고 이 평화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밝힌다.¹³⁾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1~2)

로마서 3장 21절의 의는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상태’로 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상태는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즉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의 여정이 시작된-것임을 로마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경건 및 영성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로마서 6장)-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사는 훈련-을 계속하면서¹⁴⁾ 성숙하는 삶의 여정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¹⁵⁾ 한편 로마서 6장 13~14절에 따르면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다.¹⁶⁾ 이러한 맥락에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추구하는 삶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요약하면, 로마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사랑)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정의)가 나타나고 인간이 이 새로운 의를 믿음으로 덧입게 되어 평강과 희락 속에 들어가게 되며 동시에 정의와 평화의 공존을 실현키 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정의로운 삶으로의 영광스러운 초대이자 강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긴다. 신약은 경제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구약처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로마서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의 개념을 경제

12) “The fact that they are righteous by faith means that they now live as God’s friends.” (Cranfield (1985, p. 101)

13)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데, 이 기쁨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므로 환란과 핍박 등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롬 5:1~5)

14) 그리고 이 연합의 연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에 의존한다.(로마서 7장 및 8장)

15) 이러한 부르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구가 된다.(엡 1장 및 2장)

16) 여기서 ‘의의 무기’의 의와 로마서 3장21절의 의는 동의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 정의와 연관시킬 수 있는가 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로 한다.

나.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의’: 경제사회정의와의 연관

로마서 3장 21절의 우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에(로마서 1:19~3:2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의가 나타난 것이다.

율법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하나님의 공의 및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율법을 지켜 공의를 실현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앞 절에서 언급한대로 구약의 선지서는 율법의 요구를 신정체제인 이스라엘 민족(형제)공동체 속에서 충족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공동체의 실패는 구성원 내면의 부패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의 의로운 삶은 물론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사회의 구현에 있어서 핵심이자 출발은 교회 및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이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는 내면의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서 및 신약을 통해 개인과 교회 차원의 내면의 영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온전히 실현키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간직한 새로운 의는 교회가 속한 사회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에는 열방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는데, Mason and Shafaer (1996)이 보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정치·경제·사회가 이방 나라의 본이 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새로운 의를 덧입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개인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 차원의 정의와 평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한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압제 및 인간의 무지까지 포함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야기된 경제·사회 구조 및 제도로 인하여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죄를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즉, 구속의 은혜를 잘못 적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감사의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로마서 6장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경제사회 문제와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헌신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신약 및 로마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유

대인과 이른 바 이방인으로 구성되었고 더욱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에 구약 시대와 같은 신정국가 체제를 지향할 수 없었고, 오늘날과 같은 근대 사회의 개념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제 16세기 이후에 근대사회가 탄생하고¹⁷⁾ 산업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을 거쳐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가 추구하는 근대 국가 속에 처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의의 빛을 사회와 국가에 비추고, 이러한 의의를 덧입은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가 우리의 무지를 포함한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여 지속적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에게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경제사회정의의 실현은 부수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다음 장은 이 같은 결론에 힘을 신는다.

IV. 성경적 경제사회정의의 핵심과 그 실현 동기: 시사점

1. 성경적 경제사회정의의 핵심: 약자에 대한 배려와 헌신

이제 성경적 경제사회정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철학이나 정치학에서 다양한 정의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사회정의의 내용은 매우 단순·명료하다. 첫째는 진리를 경제사회정의의 근간으로 하기에 정직과 진실이다.¹⁸⁾ 다음으로 성경적 경제사회정의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약자에 대한 배려와 헌신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덧입고 경제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평화를 가져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일관되게 드러나는 메시지이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선지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심판하는 핵심 잣대이며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마땅히 실현해야 할 것임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헌신 여부로 결정된다.

먼저 이사야 58장 5~6절의 말씀을 보기로 한다. 여기서 흉악의 결박 및 압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공의와 인자의 실현은 민족(형제)공동체인 이스라엘 국가에 적용되기 때

17) 16세기 칼빈이 어떻게 경제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대해서는 탁월한 연구의 축약본인 Bieler(1961)를 참조.

18) 어떠한 입장에서 있느냐에 관계없이 '정직'과 '진실'이라는 대 진제를 최소한 개념적으로 부인하는 사회경제정의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다.

문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사 58:5-6)¹⁹⁾

신약의 야고보 1장 27절의 말씀 역시 위 이사야서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경건의 척도는 바로 약자를 돌봄에 있다고 말한다.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논지에 따라 현대의 경제·사회적인 구조 문제 및 약으로 인한 약자의 고통에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헌신은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철학자인 Rawls가 제시한 무지의 베일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차등원칙’을 수용하여 도달하지 않는다.²⁰⁾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난 고통 속에 처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기며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2. 경제사회정의 실현의 근본 동기: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언급한대로 Wolterstorff에 따르면 칼뱅주의의 입장은 사회적 역할 혹은 사회개혁을 포함한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헌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하여 순종을 낳고 결국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소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감사의 핵심은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체험한 구속의 은혜-거저 주시는 사랑-에 있다.²¹⁾ 따라서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정의 실현과 이를 통한 평화의 공존을 삶의 목표가 되게 하며, 동시에 바로 이 은혜-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바로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근본 동기가 된다.

경제정의사회 실현의 근본 동기를 구속의 은혜(사랑)에 대한 감사에 둔다면 과연 얼마나 열정과 실천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답은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실천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일로 끝나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

19) 이어서 이사야 58장 9절은 이 같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헌신은 또한 기도의 응답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한다.

20) Rawls의 ‘무지의 베일’ 및 ‘차등원칙’에 관한 소개로는 샌델(2010, 5강)을 참조. Rawls의 차등원칙은 ‘천부적인’ 개념도 도입하여 자유와 평등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골 8:32)

없는 충만함이 되기 때문이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19-21)

반면 구속의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동시에 이에 대한 감사를 경제사회정의 실현의 출발로 삼게 되면 경제사회정의 실현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의에 대한 적개심이나 증오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개혁이나 경제사회정의 실현에 있어서 그 출발이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또 목적도 사회 구성원 간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거대한 적개심이나 증오의 표출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역사적 결과들을 적지 않게 목도하였다.

이에 반하여 성경적 경제정의 실현은 약자의 고통을 경감하거나 치유하는 동시에 약자의 고통을 가져온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구성원 간의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의 실현 자체만을 목적으로 둘 때보다 비인간적이거나 잔인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실천을 위한 제안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구속사역에 있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구속 사역의 중심에 있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핵심 사명으로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교회가 사회운동 단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경제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전문성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진단 및 처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에 교회는 직접 경제사회 구조 개혁이나 사회운동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운동에 중요한 인적 자원과 동력을 제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속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 탁월한 지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연구 및 견해를 참조하면서 그 도움을 받아야 한다.²²⁾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들이 연대하여 초교회적으로 연구에 대한 투자에 힘을 기울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간 연대가 효과적일 수 있다.

22) 종교개혁자들이 단순히 교회 뿐 아니라 사회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당시로서는 고전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Bieler(1962, 24-26쪽)에 따르면, 16세기에는 종교적 입장을 떠나 당시 헬라어 및 라틴어 고전을 연구하고 이해한 사람들을 ‘휴머니스트’라고 불렀는데 16세기 종교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도 이런 의미의 ‘휴머니스트’였다고 한다. 물론 칼빈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오늘날의 경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현대 역사가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여긴다.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경제사회정의의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약자를 집중적으로 꾸준히 돌보는 것은 그 자체로 거시적인 차원의 정의실현의 기초를 이루게 되며,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사회구조의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Wolterstorff가 제시한 ‘정의와 평강’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경제사회정의의 실현-의 목적이자 비전이 과연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인 구속의 은혜와 구체적으로 연계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정의와 평강의 공존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의로운 삶을 경주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메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로마서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의 성격과 로마서 3장 23절의 표현대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는 경제사회정의의 실현과도 일관되게 연결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오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소명은 한없는 풍성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근인이 되므로 경제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제공받으며 동시에 이러한 관점이 실제 문제 해결에 있어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경제사회정의의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요지는 신구약 전체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구약 및 신약신학의 결과들을 접목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본 논문의 요지를 근거로 해방신학과 20세기 초중반의 화란의 신칼뱅주의에 대한 Wolterstorff의 진단을²³⁾ 평가하는 연구는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3) Wolterstorff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와 평강(평화)의 공존이라는 비전이 “살림 중심적 관점은 암스테르담 학파의 창조 중심적 관점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 동시에 해방 신학자들의 구원 중심적 관점도 포함하지만, 그것 또한 뛰어 넘는다.”고 결론짓는다.

참고문헌

- 송인규 (1996). 『교회는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 의식』. 서울: 한국 IVP.
- Berkower, G. C. (1952). *Providence of God*.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
- Bieler, Andre (1961).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2003).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Cranfield, C.E.B. (1985). *Romans, A Shorter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Printing Co.
- Mason, John D. and Kurt C. Schaefer (1990). "The Bible, the State, and the Economy: A Framework for Analysis," *Christian Scholar's Review* 20(1). 45-64.
- Packer, J.I. (1973). *Knowing God*. Downers Grove: IL: IVP
- Sandel, Michael (2010). Justice. 이창신 역(2010).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 Stiglitz, Joseph E. (2003),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_____ (2006) *Making Globalization Work*.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_____ (2010). *Freefall: America, Free Markets, and the Sinking of the World Economy*.
_____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New York, NY: W.W. Norton and Company
- Woterstorff, Nicholas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 역 (2007).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서울: 한국 IVP.